

대웅제약, 신규 바이오텍 설립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급물살

아이엔 테라퓨틱스 신규 설립

이온채널평가 플랫폼 노하우 보유 R&D 유연성 확보, 빠른 성과 기대

대웅제약은 신약개발 전문기업 '아이엔 테라퓨틱스'를 신규 설립했다. 자사가 보유한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 법 인화를 통하여 연구개발(R&D)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대웅제약의 이온 채널 신약 개발 플랫폼 및 Nav1.7 비마약성 진통제, 난청치료제, 뇌질 환 치료제를 스핀아웃(분사)한 바이오 텍이다. 아이엔 테라퓨틱스는 10여 년간 다양한 중추신경계(CNS)질환의 유망 타깃인 이온채널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온채널 평가 플랫폼 및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온채널 플랫폼 기술은 그동안 이온채널 개발 시 한계로 알려진 고난도의 평가법을 극복한 기술로 고유의 경쟁력을 지녔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리드 파이프라인인 Nav1.7 비마약성 진통제(DWP17061)는 혁신신약 개발 후보이다.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개발을 시도중인 이미 타깃 검증이 된 물질로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 전경

DWP17061은 현재 호주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고 연내에 건강인 대상으로 첫 투여를 진행해 안전성과 약물동태 시험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전임상에서 투약 후 체내에 약물이 작용하는데 있어 경쟁 물질 대비 우수한 체내동태를 보인 바 있으며 골관절염에 대한 대표적인 진통제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와 비교해도 우수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바이오텍 설립과 함께 제약업계에서 25년간 신약개발 및 신사업 개발 등 폭넓은 이력을 보유한 코오롱제약 개발본부장 출신의 박종덕 대표이사 신규 선임됐다. 박종덕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엘 슈링, 노바티스에서 혈액암 및 간장차 치료영역에서 임상개발,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의 경

험을 쌓았다. 또 집단 약동학 모델을 통한 소아용 의약품 임상개발 플랫폼을 글로벌 제약사에 공동개발 및 기술수출을 진행한 성공경험을 보였다. 지난 15년간 해외 유수 글로벌 투자회사들에서 기술평가 검토 관련 자문 진행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아이엔 테라퓨틱스가 이온채널 경쟁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의 이온채널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다양한 R&D 전략을 추진하여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제약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지속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두산인프라코어, ARC어워즈서 대상

2019통합보고서 표지디자인 부문

두산인프라코어는 2019 통합보고서가 '2020 ARC 어워즈'에서 표지 디자인 부문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첫 출품한 이후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ARC 어워즈'는 기업 연차·지속가능 보고서 평가 전문가인 미국 머콧사가 주관하는 경영대회로 머큐리 어워즈, 아스트리드 어워즈와 함께 홍보물 분야 세계 3대 어워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는 전 세계 29개국에서 총 1690개의 후보작이 출품됐다.

두산인프라코어 2019 통합보고서 표지는 미래형 무인 굴착기가 디지털화된 미래로 가는 길을 형상화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변화를 선도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7년 ARC 어워즈에 첫 출품한 이래 4년 연속 수상했지만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에는 영국 CR사가 주관하는 IR/C SR 보고서 국제경쟁 CRRA에서도 '2018 통합보고서'로 입상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회사의 중요 이슈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활동 성과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했다"며 "회사 슬로건인 '파워드 바이 이노베이션'에 따라 표지와 내지를 일관성 있게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0 러시아 올해의 차' 시상식 4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아자동차의 차량.

기아자동차, 러시아 올해의 차 최우수상

피칸토·씨드 등 4개부분 수상

기아자동차가 '2020 러시아 올해의 차' 시상식 4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기아차가 러시아에 진출한 이래 역대 최다 부문 수상이다.

기아차는 '2020 러시아 올해의 차'에서 ▲피칸토(국내명 : 모닝)는 도심형 소형차 ▲씨드는 준중형 ▲셀토스는 소형SUV ▲스팅어는 그랜드 투어링카 부문에서 각각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 라인업 중 가장 소형 모델인 피칸토는 5년 연속 최고의 '도심형 소형차'로 인정받았다. 피칸토는 최종 후보에 오른 피아트 500을 제치고 디자인, 공간성, 편의사양으로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 차로 선정됐다.

씨드는 지난해 '올해의 신차' 수상에 이어 올해는 '준중형' 부문에서 최우수

차로 등극했다. 씨드 해치백, 씨드 스포츠웨건, 프로씨드, 엑씨드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된 씨드는 최종 후보인 도요타 코롤라 대비 주행성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형 SUV 부문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셀토스는 디자인, 공간활용성, 동급 최고의 편의사양으로 러시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출시 6개월만인 8월에 1783대를 판매하며, 리오(7664대), 스포티지(2898대)와 함께 러시아 시장을 이끄는 기아차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소형 SUV 시장은 리오 차급(C1)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으로 1~8월 누계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시장으로 셀토스의 올해의 차 수상은 향후 러시아 시장에서 기아차의 판매 확대를 견인할 청신호로 풀이된다.

/양성운 기자 ysw@

양자센싱 활용 가스안전솔루션 상용화

SKT, 한전 등과 업무협약 체결

최첨단 '양자 기술'이 대형 가스 시설물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활용된다.

SK텔레콤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가스안전 전문기업 한국플랜트관리, 양자·광기반 센싱 전문기업 퀀텀센싱과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 센싱'을 활용한 차세대 가스 안전 솔루션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양자 센싱'은 더 이상 나날 수 없는 최소 에너지 단위인 광자를 측정해 물

체를 감지하거나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양자 기반 가스 센싱 솔루션'은 시설물에 빛을 발사하고 반사된 빛의 파장을 분석해 가스 누출 여부·농도를 측정하고, 위험성을 실시간 관제센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가스 시설물의 관제를 위해 보편적으로 쓰이는 'IR(적외선) 기반 가스 누출 감지기'는 탐지거리가 짧고, 가스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며, 소량의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없다. 가스 누출이 의심스러운 경우, 관찰자가 가스 누출 여부를 근거리에서 확인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고용현황 및 계획>

(단위 : 명)

| 특구지정 전 | 2020년 7월말 | 고용증가 | 2021년 12월 계획 |
|-------------------|-----------|------------|--------------|
| 1,181(2019년 6월말) | 1,476 | 295(24.9%) | 1,769(+293) |
| 2,972(2019년 10월말) | 3,339 | 367(12.3%) | 4,027(+688) |
| 계 | 4,153 | 662(15.9%) | 5,796(+981)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일자리창출 등 성과

지정 전 4153명 보다 올 662명 ↑ 100개 이전기업서 39.6% 고용증가

규제자유특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일자리 등을 늘리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고용현황을 특구 지정 전 4153명과 비교해 올 7월 기준 전년 동기보다 662명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에는 총 200개의 특구사업자가 참여했다.

특히 전북 특구는 가장 많은 98명이 늘었다.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그 밖에도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 울산 수소특구, 대전 바이오메디컬 분야 특구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타지역에서의 100개의 이전 기업을 통한 고용증가 비중은 39.6% 늘었다.

그 밖에도 규제자유특구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지역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262명을 고용했다. 전체 고용률 39.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481명으로 높은 고용 규모를 확인했다. 증가율도 72.7%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중 모빌리티(자율 차, 친환경 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도 320명을 추가 고용했다.

특구사업자의 신규 고용 인력은 평균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568명, 비정규직 94명으로 고용품질에서도 긍정적인 성적을 거뒀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7년 이상이 474명을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했다. 창업 후 3년 미만과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

만은 각 94명을 고용했다.

특구사업자는 2021년까지 981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특구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 지원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규제혁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기부는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도 발간했다. 특구의 신청과 지정,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국민과 기업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백서에는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A~Z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있다. 백서는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